

#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역사와 특징\*

이 준 환\*\*

- I. 머리말
- II.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
- III. 한국전쟁 이후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 IV.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 이후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 V.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 이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 VI.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 VII.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남북 단일팀은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었나? 또한 남북 단일기는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 지도를 포함했고, 이와 반대로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독도를 뺐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논문은 한국이 1947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승인받은 뒤부터 2018년 10월 자카르타장 애인아시아게임까지 추적한다. 이 기간 동안 열렸던 국

제체육대회에 남북은 13회의 공동입장, 16회의 한반도기 이용, 7회의 단일팀 구성, 9회의 공동응원을 실시했다. 이 논문은 남북 사이에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특징을 규명하고 그 현실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남북체육회담, 단일팀, 단일기, 한반도기, 대통령선거, 제도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7년 자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머리말

이 논문은 ‘남북 단일팀은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또한 남북 단일기는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 지도를 포함했고 이와 반대로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독도가 빠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시간적 범위는 한국이 1947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승인받은 뒤부터 2018년 10월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아게임까지이다. 이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는 남북 사이의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사용에 있어서 발견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특징이다. 이 논문은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열린 남북체육회담과 국제체육대회 가운데 단일팀 및 단일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두 추적한다.

북한은 유일팀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단일팀이라고 불렀지만 남북이 “표현에서는 각기 부르도록 합시다. 편리한대로 합시다.”라고 합의했던 남북 단일팀의 구성은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로 승인받으면서 70년 넘게 반복된 행사였다.<sup>1</sup>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 이후 후속회담에서 단일기가 처음 논의된 뒤 1989년 판문점에서 열렸던 1990년 중국 베이징아시아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한반도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8년까지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13회의 공동입장, 16회의 한반도기 이용, 7회의 단일팀 구성, 9회의 공동응원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역사와 특징을 추적하기 위하여 먼저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 연구는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에 대한 역사와 특징을 한국전쟁 이후,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 이후,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 이후,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의 시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현실적 함의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의 체육회담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 연구는 그나마 중요한 남북체육회담 관련 합의문 등을 일부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였다. 그리고 1989년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이 펴낸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국토통일원, 1989), p. 15.

<sup>1</sup>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국토통일원, 1989), p. 15.

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1·2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은 한반도기가 제안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야말로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외에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기사에 의존한다.

## II.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

1908년 1월에 처음 선보인 올림픽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각국을 대표하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했다.<sup>2</sup> 한 세기 이전에 인쇄된 이 책자의 겉면에는 비록 올림픽헌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올림픽의 정신 및 원칙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반 규정의 맹아를 담고 있었고 그 후 60회 이상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왔다.<sup>3</sup> 이에 따라 1908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열렸던 영국 런던올림픽부터는 과거와 달리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단위로 올림픽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이후 올림픽이 더 이상 유럽 지역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개인끼리 경쟁이나 만국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옆에서 진행되는 만국운동회 식이 아니라 국가대표끼리 경쟁하는 국가대항전 개념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한국이 태극기를 달고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렸던 런던올림픽이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이 단독으로 올림픽에 처음 참가했던 것은 1964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열린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동계올림픽이었고 그 뒤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부터 다시 참가하기 시작했다.<sup>4</sup> 한국은 1945년 독립 직후인 1947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이미 국가올림픽위원회(대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승인받았으나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조선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은 것은 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였기 때문이다.<sup>5</sup> 1957년의 소피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오직 북한 지역 안에서 대내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고 올림픽 참가 등 대외적인 활동은 대한올림픽위

<sup>2</sup>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Lausann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1908), p. 8.

<sup>3</sup> IOC <<https://www.olympic.org/olympic-studies-centre/collections/official-publications/olympic-charters>> (Accessed March 25, 2018).

<sup>4</sup> *Washington Post*, January 18, 2018.

<sup>5</sup> 박주한, “냉전체제의 종식과 남북한 스포츠 교류,” 『움직임의 철학: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 제5권 제2호 (1997), pp. 35~66.

원회의 소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인정되었다.<sup>6</sup> 1908년 올림픽 현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국가마다 하나의 위원회만 인정하는 원칙, 즉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은 동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sup>7</sup> 세계대전 전 독일은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회원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된 뒤에도 서독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구성이 과거 독일 국가올림픽위원회를 계승했다는 차원에서 1951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당시 동독의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문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동독은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5개 이상의 국제경기연맹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터라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은 성사되지 못했다. 1952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20년 동안 맡은 브룬디지(Avery Brundage)는 서독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승인했을 때 이를 서독으로 국한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동독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구성문제는 독일 안에서 해결하고 올림픽 참가 문제도 하나의 독일팀으로 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이에 따라 동독은 1951년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부터 독일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불리한 협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에까지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국제적인 반발을 자초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그 결과로 1952년 핀란드 헬싱키올림픽에는 동독 없이 서독이 단독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그 뒤 동서 사이의 오랜 협상과 수없이 반복된 체육교류 끝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1955년 6월에 독일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sup>9</sup> 이에 따라 독일 단일팀이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하여 1956년 호주 멜버른올림픽, 1960년 이탈리아 로마올림픽, 1964년 일본 동경올림픽까지 참가했고 이때에 동시입장도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은 냉전이 가속되면서 1968년부터 통일이 될 때까지 다시 각자 올림픽에 출전하였다.<sup>10</sup>

<sup>6</sup> 황옥철, “남북체육회담의 변천사 고찰,” 『체육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7), pp. 145~158.

<sup>7</sup>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중국과 대만의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 문제와 과정에 대해서는 허복·오동섭(1985)과 윤득현(2009) 등을 참조할 것.

<sup>8</sup> 허복·오동섭, 『올림픽정치사』 (서울: 보경문화사, 1995), pp. 112~118.

<sup>9</sup> 황옥철, “남북체육회담의 변천사 고찰,” pp. 145~158.

<sup>10</sup> 윤득현, 『올림픽의 정치』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9), pp. 69~123.

### Ⅲ. 한국전쟁 이후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북한도 동독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1955년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와 달리 한반도에는 그 시기가 동족상잔의 상처와 피해가 크게 남은 직후였던 만큼 남북 사이에 서로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이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상은 물론 체육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독일의 사례와 비슷하게 북한은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에 의거하여 1957년에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받는 것 외에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것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독일과 같은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는 남북체육회담의 개최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표는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조건부로 가입이 승인된 1957년부터 1990년까지 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표적인 남북체육회담의 흐름을 요약하고 있다.

〈표 1〉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흐름

대회 이름	제안 내용	제안 측	주요사항
1960(8.25.~9.11.) 로마올림픽	1956년 9월 단일팀 구성 제안	IOC 권고 북 제안	1957년 6, 7, 9, 12월 1958년 12월 1959년 5월 IOC 권고
1964(10.10.~10.24.)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IOC 권고 북 제안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 회담 1963년 5, 7월 홍콩 회담
1964(1.29.~2.9.) 인스브루크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북 단독참가 시작
1972(8.26.~9.11.) 뮌헨올림픽			하계올림픽 북 단독참가 시작
1979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북 제안	1979년 2-3월 판문점 회담
1980(7.19.~8.3.) 모스크바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안 1972년 12월	북 제안	회담 불발 미국 한국 보이콧
1984(7.28.~8.12.)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제안 1981년 6월 19일	남 제안	회담 불발 북한 보이콧 선언(3월)
1988(9.17.~10.2.) 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IOC 중재	1985년 10월-1987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체육회담

출처: 황옥철, “남북체육회담의 변천사 고찰,” 『체육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7), pp. 145~158;  
하용용, “남북한 스포츠회담사,” 『체육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0), pp. 38~47.

국제연합(UN)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은 1956년 4월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남북 체육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표 1>에 정리되어 있듯이 북한은 1956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하여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sup>11</sup> 이에 비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나 우리 정부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남북이 분단 상황으로 계속 휴전으로 대처하는 중이라 상호교류조차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한편 북측에게는 단일팀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의 제안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었다.<sup>12</sup>

1957년 6월에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직접 남북의 올림픽위원회를 연합해서 ‘유일한 조선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거절하자 북한은 7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하여 항의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단일팀 구성 제안을 다시 한 번 거부했고 북한은 9월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부각시켰다. 북한이 12월에는 조선올림픽위원회 명의로 1960년 로마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자고 하며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나 이에 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59년 5월 독일 뮌헨 총회에서 로마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에게 각자 중립지역에서 체육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지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여전히 거부했다. 다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남북 단일팀의 다른 표현인 ‘혼성팀 형성’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두었다.<sup>14</sup> 이 사이 1958년과 1959년에 개최되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소련과 불가리아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북한의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완전히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5</sup> 결국 남

<sup>11</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4호 (2013), pp. 21~33.

<sup>12</sup> 하용용, “남북한 스포츠회담사,” 『체육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0), pp. 38~47.

<sup>13</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pp. 21~33; 황옥철, “남북체육회담의 변천사 고찰,” pp. 145~158.

<sup>14</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pp. 21~33.

북 사이에 의미 있는 체육회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1960년 로마올림픽에는 한국의 단독참가만 이루어졌다.

1962년 6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는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총회의 결론을 대한올림픽 위원회에 통보하고 만약 9월 1일까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을 경우에는 북한을 1964년 동경올림픽에 단독으로 참가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북한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8월 판문점에서 갖자고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의 체육회담 제안을 자신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노력이라고 해석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이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구성은 북한과 협상을 하기보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브런디지 위원장의 입장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하여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대한올림픽위원회도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라는 것이었다.<sup>15</sup>

당시 브런디지 위원장은 우리 대표에게서 독일 단일팀 구성과 달리 한국전쟁의 여파 때문에 남북 단일팀 구성이 어렵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이 아닌 각각의 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입장이 매우 강경해졌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남북이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을 결렬시켜서 단일팀 구성을 막아 북한이 단일팀 아닌 개별팀으로 참가하게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아예 봉쇄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점차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압박하는 방향으로 중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17</sup>

그 결과 1963년 1월 로잔에서 열렸던 남북체육회담에는 남북 사이에 매우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sup>18</sup> 로잔 회담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국기, 국가, 선수단과 관련된 문제가 타결되었던 것이다. 첫째, 국기

<sup>15</sup> 윤득현, 『올림픽의 정치』, pp. 7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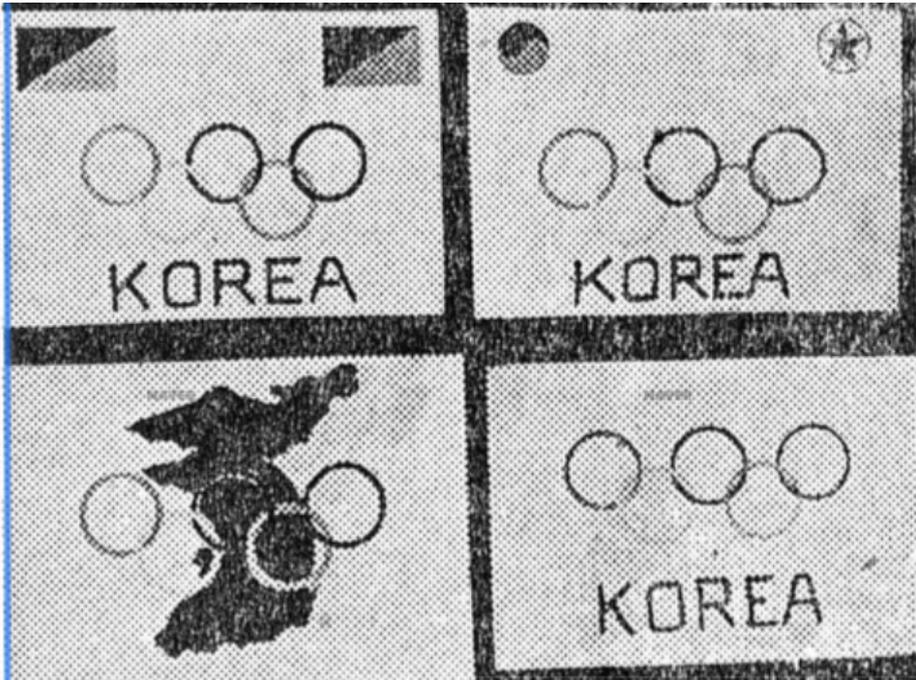
<sup>16</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pp. 21~33.

<sup>17</sup> 김재우,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6호 (2013), pp. 1~9.

<sup>18</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pp. 21~33.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북측이나 우리 측의 제안이 서로 크게 달라서 2월에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국가 문제는 우리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아리랑으로 합의했다. 북측은 25초씩 북한의 국가와 애국가를 각각 편집해서 하나로 연주하자고 했고 우리 측은 애국가로 맞섰으나 서로 양보했던 것이다. 셋째, 선수 임원 선발 문제는 독일 단일팀의 모델을 따라 선발된 선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을 맡고 반대 측에서 부단장을 맡는 방식에 합의했다. 독일 단일팀은 과거에 선발전을 통하지 않고 종목별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로 구성되었다.<sup>19</sup>

〈그림 1〉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과 단일기 안



출처: 『동아일보』, 1963.2.7.

<sup>19</sup> 1963년 1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로잔 남북체육회담의 상호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政治的으로分割된 南北韓은 64年度 「올림픽」大會에派遣할 單一代表團(單一「팀」)을 構成한다. ②아직 國旗選擇問題에關한合意는 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 南北韓代表團들은 이問題를 IOC에委囑하여 2月7日의 IOC執行委員會會議에서 解決策을 講究케하였다. ③國歌問題에 關해서는 一九四五年以前부터 불려오는 民謠 「아리랑」을 選擇하기로 兩側代表團이 合意하였다. ④單一「팀」의團長은兩側 「스포츠」 役員들이 64年度의冬季및 夏季競技에 參加시키기위하여 選拔된運動選手人員數 가운데서最大의 人員數를가지는側의 代表團에依하여 地名될 것이다. ⑤兩側代表團은 IOC委員團에 依해서 베를린에서 晚餐에 參席한다. ⑥三時간半에 걸쳐 繼續된 會談은 가장 훌륭한 「올림픽」精神下에 進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문제를 제외하고는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1963년 1월 로잔 남북체육회담에서 단일팀 국기에 대하여 논의했던 과정은 1963년 2월 7일 동아일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1> 가운데 왼쪽 위 도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안이었다. 북측은 왼쪽 아래와 같이 한반도 지도에 오륜 문양을 새기는 도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상징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것은 사실상 단일기에 한반도 지도가 등장한 첫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독도는 물론 제주도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한 면에는 태극기 다른 면에는 자신의 국기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보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른쪽 위와 같이 태극문양과 별모양으로 양측 국기를 각각 상징하는 식으로 수정하여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거부했고 대신 태극기를 고집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오륜 문양과 ‘KOREA’가 담긴 오른쪽 아래 도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하여 북한이 동조했으나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마저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1963년 로잔 회담의 상호합의내용에 따라 2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국기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 브런디지 위원장은 맨 마지막 도안의 연장선 상에서 오륜 문양과 ‘UNITED KOREAN TEAM’을 쓰는 도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태극기를 고집하다가 만약 반대에 부딪히면 태극기에 오륜을 넣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56년 독일 단일팀이 서독 국기를 들고 나갔다가 1960년부터는 중립적으로 서독 국기에 오륜을 새겨서 출전했던 사례를 따른 것이었다.<sup>20</sup>

정작 회의가 예정된 날 하루 전에 브런디지 위원장이 남북의 협상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단일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제안했던 한반도 지도에 오륜이 새겨진 도안이나 오륜과 ‘UNITED KOREAN TEAM’이 새겨진 도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이 합의할 것을 권했다. 당시 독일 단일팀의 공식 명칭(United Team of Germany)과 비슷한 남북 단일팀 이름이었다. 아울러 브런디지 위원장은 남북이 더 좋은 도안을 제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태극문양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sup>21</sup>

<sup>20</sup> 윤득현, 『올림픽의 정치』, pp. 70~98.

<sup>21</sup>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pp. 21~33.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브런디지 위원장이 희망했던 2주의 시한을 한참 넘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4월 19일 로잔에서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마이어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친 결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브런디지 위원장이 제안했던 도안과 가까운 <그림 1>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마지막 안(오륜 문양과 'KOREA')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선택이었던 한반도 지도에 오륜이 새겨진 도안은 북한이 제안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이로써 1963년 1월 로잔 회담의 합의사항에 매듭이 지어졌다.

하지만 1964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5월과 7월에 홍콩에서 남북체육회담을 더 이어가기로 했다. 5월의 홍콩 회담에서는 예선경기, 재정, 차기 회담 일정, 기타 미합의 쟁점 등을 처리하고 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7월 홍콩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국은 여전히 단일팀 구성을 거부했고 단독 참가를 목표로 했으며 회담의 결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7월 말 홍콩 회담 직전 북한 대표의 도착성명서에 포함된 용어(National Union)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회담을 아예 결렬시켰다. 이 용어가 우리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실제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마이어 사무총장은 회담이 깨진 책임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 보고 다시 회담을 열 것을 권했다.<sup>22</sup>

전반적으로 초기 남북체육회담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북한이 매우 적극적이었던 반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비교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1963년 8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남북이 각각 별개의 팀으로 1964년 동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의하여 조건부 승인 자격에서 정식 국가올림픽위원회를 보유하도록 인정을 받게 되었다.<sup>23</sup> 이로써 1956년 호주 멜버른올림픽 기간에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가입 표결이 찬성 15, 반대 25, 기권 4로

<sup>22</sup> 김재우,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pp. 1~9.

<sup>23</sup> IOC, *Minutes of the 60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Baden-Baden Kurhaus October 14th-20th 1963*. <<http://library.la84.org/OlympicInformationCenter/OlympicReview/1964/BDCE85/BDCE85n.pdf>> (Accessed April 8, 2018).

무기한 연기된 뒤 그 가입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던 것이다. 북한은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 IV.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 이후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1963년 로잔 회담 이후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이어지면서 남북의 체육 회담도 얼어붙었다. 그러나 1972년 2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남북 사이에도 1972년 여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정도로 환경이 바뀌었다. 1972년 8월 26일부터 열렸던 뮌헨올림픽은 이미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여유 없이 다가왔고 결국 남북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뮌헨올림픽이 처음이었다. 뮌헨올림픽이 한창이었던 9월 8일 남북은 체육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구현할 것을 약속하며 남북이 서로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지고 합의했다.<sup>24</sup> 하지만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교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후 1970년대에 남북 사이의 의미 있는 체육회담이 다시 이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1979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다시 남북 사이에 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1977년 북한이 이 대회를 유치할 때 국제탁구연맹이 한국, 미국, 이스라엘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북한은 2월 20일에 우리 정부에게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와 비슷하게 회담에는 임하지만 단일팀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고 단독 참여를 확보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단독 참여를 반대하는 대신 단일팀 구성을 추진했다. 1972년 뮌헨 회담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남북체육회담이었지만 네 차례의 판문점 회동은 아무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회담 내내 대한탁구협회는 국제탁구연맹의 회원으로서 당연히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니 그 기득권을 먼저 인정하고 보장해야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를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측은 단일팀을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었다.<sup>25</sup>

<sup>24</sup>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50年史, 1946-1996』 (서울: 대한올림픽위원회, 1996), pp. 176~178.

<sup>25</sup> 김재우,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한국체육학회지』, 제53권 제6호 (2014), pp. 15~25.

7·4 남북공동성명이 1970년대 남북 체육교류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1988년의 7·7 선언이 그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국내적인 논리보다는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데탕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등장했다면 7·7 선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한편, 북한의 남북 단일팀 구성요구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7·7 선언을 통하여 노태우 정부는 평화와 화합의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북한을 민족공동체적 선의의 동반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sup>26</sup>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을 따라 1980년 소련 모스크바올림픽을 보이콧했고 북한은 러시아를 좇아 1984년 미국 LA올림픽에 불참했다. 결국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66개 국가가 빠졌고 1984년 LA올림픽에 소련의 주도로 14개국이 불참했다. 올림픽현장이나 정신과 달리 정치나 이념에 장기간 올림픽이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정부는 물론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위원장과 전 세계적 희망이었다.<sup>27</sup>

사실 북한은 1985년 여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동개최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사마란치 위원장은 세계평화의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남북 사이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도시에서 열리는 것이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공동개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더 이상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였다. 1985년 10월 회담에서는 북한이 서울올림픽 대신 평양-서울올림픽으로 명칭을 바꿔 공동개최하고 개폐막식도 두 곳에서 각각 한 번씩 치르며 평양에서 11개 종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현장과 서울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며 북의 제안을 거부했고 다만 축구, 배구, 핸드볼 경기를 분산해서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현장과 규정상 공동개최가 불가능하고 단일팀 구성은 남북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28</sup>

<sup>26</sup> 김재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1호 (2015), pp. 37~46.

<sup>27</sup> 김운용, 『위대한 올림픽』 (서울: 동아출판사, 1990), pp. 79~106.

<sup>28</sup> 윤득현, 『올림픽의 정치』, pp. 202~205.

1986년 1월에 열린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합의만 하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 올림픽위원회는 기존의 세 종목에 한 종목을 더 추가하여 분산 개최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공동개최 대신 분산 개최로 종목을 조금 더 추가하는 협상을 벌이자는 입장이었다. 1986년 6월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한에게 양궁 및 탁구 개최와 사이클 및 축구의 일부 개최를 최종적인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동의했지만 북한은 남북이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나눠서 개최하고 TV 중계료 수입도 그에 맞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했다.<sup>29</sup>

하지만 1987년 2월 북한은 입장을 바꾸면서 사마란치 위원장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사마란치 위원장이 제안했던 4개 종목에서 다른 6개 종목을 더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후 사마란치 위원장은 1년여의 중재과정에서 북한에게 다시 4개 종목에 걸쳐 10개의 세부 경기를 더할 수 있지만 다른 6개 종목을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축구 예선전을 맡길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6개 종목 추가를 고수하는 동시에 특히 축구의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평행선은 1988년 1월 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이어졌고 결국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sup>30</sup>

## V.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 이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1989년부터는 남북 단일팀 및 단일기 등과 관련하여 그전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과거에는 남북 사이에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만 지루하게 진행되었다면 1989년부터는 협상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실질적인 이행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새로운 국제환경을 조성시켰다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국내정치 변화도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시키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sup>29</sup> 위의 책, pp. 205~209.

<sup>30</sup> 위의 책, pp. 209~213.

〈표 2〉 국제체육대회와 단일팀 및 한반도기

행사 이름	공동입장	한반도기 (독도포함)	단일팀	응원단	공연단
1990(9.22.~10.7.) 북경아시안게임		○		○	
1991(3.25.~5.8.)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	○	○	○	
1991(5.6.~6.29.)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갈)	?	○	○		
2000(9.15.~10.1.) 시드니올림픽	○	○		○	
2002(9.29.~10.14.) 부산아시안게임	○	○		○	
2003(1.30.~2.8.)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	○	○			
2003(8.21.~31.) 대구유니버시아드	○	○		○	(○)
2004(8.13.~29.) 아테네올림픽	○	○			
2005(10.29.~11.6.) 마카오동아시안게임	○	○			
2006(2.10.~26.) 토리노동계올림픽	○	○			
2006(12.1.~15.) 도하아시안게임	○	○ (○)			
2007(1.28.~2.4.) 장춘동계아시안게임	○	○ (○ 울릉도)			
2008(8.8.~24.) 베이징올림픽				○	
2018(2.9.~25.) 평창동계올림픽	○	○	○	○	○
2018(3.9.~18.) 평창동계패럴림픽	○				
2018(4.29.~5.6.) 세계탁구선수권대회(스웨덴 할름스타드)			○		
2018(8.18.~9.2.)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	○	○	○	
2018(9.20.~27.) 세계유도선수권대회(아제르바이잔 바쿠)		○	○		
2018(10.6.~10.13.)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	○	○	○	○	○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s://dialogue.unikorea.go.kr/ukd/a/ad/usrtaltotal/List.do>>  
(검색일: 2018.11.29.).

1990년 중국 베이징아시아경기회를 앞두고 1989년부터 북한이 먼저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했다. 제1차 회담이 3월 9일 열렸는데 북한의 입장은 1. 팀 이름을 “고려선수단”(KORYO, KRY)으로 하고, 2. 유일팀 깃발을 “흰색바탕에 황토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그 아래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KORYO라고” 쓰며, 3. 팀 노래를 “1920년대 북쪽과 남쪽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하자는 것이었다.<sup>31</sup> 이에 비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1. 선수단 호칭을 “남북단일팀”(KOREA)으로 하고, 2. 선수단의 단기는 “흰색바탕에 녹색 한반도지도를 넣고 그 아래에 로마자 KOREA”를 쓰며, 3. 선수단의 단가는 “우리 민족의 민요인 아리랑”으로 하자는 것이었다.<sup>32</sup> 이 회의에는 북측이 단일기의 안을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도 사실상 제주도를 빼 모든 섬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첫날 회의에서는 깃발과 관련하여 흰색바탕에 한반도 지도를 그리는 것에 대하여 합의했고 북한이 준비해온 아리랑 녹음까지 듣고 단가로 바로 아리랑으로 합의했다.<sup>34</sup>

3월 28일 열렸던 제2차 회담에서 북측은 깃발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기했던 황토색이나 녹색에서 벗어나 제3의 색인 하늘색으로 바꾸자고 수정했고,<sup>35</sup>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녹색으로 할 부분과 황토색으로 할 부분을 구분해서 두 색을 다 쓰자고 제안했다.<sup>36</sup> 지금까지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은 먼저 남측의 장충식 수석대표가 “우리 남쪽에는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다 그려 넣는 것도…”라고 말을 흐리는 데 대하여 바로 북측의 김형진 수석대표가 “아니, 상징인데 그건”하며 넘어가면서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37</sup> 당시 회의록에는 기대와 달리 독도에 대한 논의가 이외에 발견되지 않았다.

제2차 회담에서는 깃발에서의 한반도 지도의 색을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는 대신 KOREA나 KORYO니 표기를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sup>38</sup> 명칭과 관련해서 북측은 “우리말로 고려로 하고 영어로는 KOREA”하자고 제의했다.<sup>39</sup> 이에 대하여

<sup>31</sup>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 pp. 19~20.

<sup>32</sup> 위의 글, p. 26.

<sup>33</sup> 위의 글, p. 44.

<sup>34</sup> 위의 글, p. 67.

<sup>35</sup>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2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 (국토통일원, 1989), p. 23.

<sup>36</sup> 위의 글, p. 31.

<sup>37</sup> 위의 글, p. 34.

<sup>38</sup> 위의 글, p. 40.

남측의 장충식 수석 대표는 자신의 재량을 넘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sup>40</sup> 다만 회의 말미에 영어로 KOREA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sup>41</sup>

10월 20일 열렸던 제3차 회담에서는 남북 단일팀 단기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흰 바탕에 하늘빛 한반도지도로 합의”가 이루어졌다.<sup>42</sup>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sup>43</sup> 이러한 합의 사항은 제2차 회담에서 모든 섬을 다 그릴 수 없어 제주도만 상징으로 그려 넣자는데 남북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것은 제주도의 도안 상징성을 고려하는 반면에, 독도가 가지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상징성에 주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피해나갔던 결과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한반도기가 탄생했다. 제3차 회담에서 단일팀 명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글표기로 ‘한나라’와 영어로 KOREA로 제안했는데 북한쪽은 ‘코리아’와 KOREA로 맞섰다.<sup>44</sup> 하지만 11월 16일의 제4차 회담에서 마침내 호칭문제에 대하여 북측의 제안에 따라 코리아(KOREA)로 합의가 이루어졌다.<sup>45</sup>

그러나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체육회담은 무려 9차에 걸친 회동 끝에 결렬되고 말았다. 다만 북경아시안게임이 개막했던 1990년 9월 22일 오전 북경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가 남북체육회담을 열어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날 밤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즉 남북 응원단이 함께 앉아 각각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서로 다른 국기를 이용하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약 1년 전 판문점 체육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다는 보도이다.<sup>46</sup> 이에 따라 북한 응원단이 4백여 개의 한반도기를 만들어 한국

<sup>39</sup> 위의 글, p. 52.

<sup>40</sup> 위의 글, p. 54.

<sup>41</sup> 위의 글, p. 99.

<sup>42</sup> 『한겨레신문』, 1989.10.21.

<sup>43</sup> 김재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p. 46.

<sup>44</sup> 『한겨레신문』, 1989.10.21.

<sup>45</sup> 『한겨레신문』, 1989.11.17.

<sup>46</sup> 『서울신문』, 1990.9.23.

〈그림 2〉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과 한반도기



출처: 『한겨레신문』, 1989.10.21.

응원단에 나누어 주며 같이 쓸 것을 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sup>47</sup> 이로써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응원을 실현했고 한반도기가 선보였다.

다른 한편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이 한창인 9월 29일 남북의 선수단장이 모여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sup>48</sup> 이에 따라 첫 경기는 10월 11일 평양과 10월 23일 서울에서 서로 상대측을 응원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다음 경기는 2002년 9월 7일 서울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2005년 8월 14일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sup>49</sup> 이를 계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남북체육회담과 실무회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1990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우리 정부의 정동성 체육부장관과 북한의 김유순 체육위원회위원장이 “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나. 제25회 하계올림픽대회(바르셀로나), 다. 제3회 동계아시아대회(삼지연)”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10월 24일 서울에서 다시 만난

<sup>47</sup> 『국민일보』, 1990.9.24.

<sup>48</sup> 김재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p. 46.

<sup>49</sup> 강복창, “남북통일축구, 교류의 디딤돌 포석,” 『SPORTS KOREA』, 제267권 (1990), pp. 18~21.

두 사람은 단일팀 구성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1차 남북체육회담을 11월 29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때 모두 네 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이 열렸는데 1991년 2월 12일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같은 해 치러지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단장은 북측이 맡고 세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장은 남측이 맡기로 하면서 쟁점이 타결되었다.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였다면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때 남북 단일팀은 여성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뒤 시상식에서 한반도기가 휘날리기도 했다.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이 공동응원에 대하여 합의했지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에 사는 동포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공동응원을 벌였다.<sup>50</sup> 같은 해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도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달고 단일팀으로 출전했다.<sup>51</sup>

1991년 삿포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남북의 동시입장이 이루어질 뻔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개막식 전날 개막식 입장순서를 확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각국의 영어표기에 대하여 북한이 PRK(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남북의 선수단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동시입장을 제안했던 것이다. 1968년 멕시코시태권도올림픽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동독, 대만, 북한의 자신의 이름을 각자 신청대로 도이취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고치기를 결정한 뒤였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양측이 태극기와 인공기에 각자의 뜻을 듣고 선수단도 양측이 2열로 걸어 들어오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그대로 준수하는 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제안에 따르겠다고 답했다.<sup>52</sup> 그러나 북한은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와 KOREA로 단일기와 국가표기를 이용하기로 했던 합의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결국 개막식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남북 공동입장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sup>50</sup> 박도천, “동일 앞당기는 남북체육교류 3탁구단일팀 동행기: 승리, 이별, 그 짧았던 46일간의 통일여정.” 『SPORTS KOREA』, 제272권 (1991), pp. 18~21.

<sup>51</sup> 이현우·김재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코리아 단일팀참가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6), pp. 77~93.

<sup>52</sup> 『한국일보』, 1991.3.3.

1993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변수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 남북이 실제로 국제체육대회에서 공동입장하게 된 것은 2000년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에서였다.<sup>53</sup> 2000년 시드니올림픽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그 성과로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8·15를 맞아 이산가족의 상봉도 이루어진 직후 9월 15일에 열렸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시드니올림픽 개막을 5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동시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sup>54</sup> 김대중 정부가 남북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여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미 5월부터 오륜기 뒤에 서서 남북 각각의 국가올림픽위원회기를 들고 공동입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마란치 위원장의 제안과 달리 남북이 오륜기나 각각의 국기를 들지 않고 대신 한반도기를 들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때 사마란치 위원장의 제안보다 공동입장의 선수단 규모를 더 확대했고 아리랑 대신 각자의 국가를 연주하기로 합의했다.<sup>55</sup> 9년 전 일본의 지바에서와 같이 호주 시드니의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남북 공동응원을 벌였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를 시작하자 그 다음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는 그 전례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가 우리 땅에서 열리면서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응원단과 공연단이 내려와 남북이 함께 응원을 펼치고 북한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표 2>에 나오듯이 이외에도 2003년 일본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동아시안게임, 2006년 캐나다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한반도기를 달고 출전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06년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과 2007년 중국 장춘동계아시안게임이었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07년 장춘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가 각각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사이의 합의와 달리 실무적인 문제로 인하여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서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등장하지 못했다. 사전에 “남북한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합

<sup>53</sup> 김동선,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pp. 3~13.

<sup>54</sup> 『문화일보』, 2000.9.14.

<sup>55</sup> 『한국일보』, 2000.9.14.

의했지만 남북 당사자들의 준비 부족과 도하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의 협조가 따르지 않아 불발”되었다.<sup>56</sup> 12월 1일 개막식이 있기 직전인 11월 “22일 통일부가 독도를 새긴 한반도기를 북측에 제안하기로 입장을 정해놓고 이같은 방침을 DAGOC에 미리 전달하지 못”했다.<sup>57</sup> 실제로 “개회식 전날인 11월 30일 남북체육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입장때 ‘독도 표기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며 “독도 표기 한반도기”의 샘플을 대회조직위에 전달했으나 조직위의 실수로 기존에 만들어진 한반도기가 개회식 직전 배포됐다는 것. 결국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했으나 교체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KOC의 설명”이었다.<sup>58</sup> 하지만 2006년 12월 15일 도하아시아게임 폐막식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들고 참가했다.<sup>59</sup>

이에 비하여 2007년 중국 장춘동계아시아게임은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에 더 나아가 남북 선수단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공동입장한 남북 선수단이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었다.<sup>60</sup> 한반도기와 관련하여 올림픽게임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연달아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시안게임이 올림픽게임에 비하여 융통성을 훨씬 더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셰이크 아메드(Sheikh Ahmed) 회장은 “남북한이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파견한다면 OCA 규정을 한시적으로 개정해서라도 이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다.<sup>61</sup> 당시 셰이크 아메드 회장은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에 남북 단일팀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남북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로게(Jacques Rogge)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출전을 공약했고 그 전단계로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부터 남북의 단일팀 출전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했다.<sup>62</sup>

<sup>56</sup> 『한국일보』, 2006.12.3.

<sup>57</sup> 위의 신문, 2006.12.3.

<sup>58</sup> 위의 신문, 2006.12.3.

<sup>59</sup> 『경향신문』, 2006.12.16.

<sup>60</sup> 『한국일보』, 2007.2.4.

<sup>61</sup> 『경향신문』, 2005.9.9.

<sup>62</sup> 『문화일보』, 2005.9.12.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올림픽게임과 아시안게임이 보이는 차이는 올림픽현장과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현장의 서로 다른 위상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펴낸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in Force as from 15 September 2017)의 제31조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기, 휘장 및 노래에 따르면 “올림픽대회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NOC가 채택한 기, 휘장 및 노래는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19조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IOC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3.10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현장과 올림픽대회 조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IOC의 모든 규정을 적절한 형식(예를 들면 규정, 규칙, 규범, 지침, 지표, 편람, 지시, 요구사항 등)으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집행위원회가 남북 단일팀이나 단일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Olympic Council of Asia Constitution and Rules 2017)의 관련 규정은 상당히 느슨하다. 올림픽 헌장과 달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어디에도 각국이 채택한 깃발이나 국가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승인을 받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따르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회는 막강한 전권을 행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와 달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운영이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올림픽현장이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현장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른바 정치적 선전의 금지이다.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은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제70조 제3항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선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여전히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된 바 있는 것이다.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과 매우 유사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 제7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미 2006년과 2007년에 독도나 울릉도까지 포함된 한반도기가 허용되었다.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

기하는 데 대한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질의했고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sup>63</sup> 이러한 움직임 끝에 2006년과 2007년 아시안게임 때 한반도기가 과거와 획기적으로 달라졌던 것이었다.

이와 매우 대조되는 사례는 2006년 2월 열렸던 이탈리아 토리노동계올림픽이다. 토리노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TOROC)는 개막 약 3개월 전에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동시입장에 대비하여 한반도기 기준을 문의했을 때 결과적으로 과거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한반도기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없었다. 당시 통일부는 “한반도기는 행사용이어서 그때그때 북측과 협의해 정했기 때문에 시기마다 달랐지만 공동 행사를 할 때에는 모양이 똑같았다”는 입장을 가졌다.<sup>64</sup> 결국 2006년 토리노동계 올림픽에서도 한번 한반도기에 빠졌던 독도는 다시 포함되지 못했다.

## VI.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2007년 장춘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10년 동안은 남북체육교류에 있어서 거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보수 정당으로 바뀐 것도 큰 변수로 작동했다.<sup>65</sup> 이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것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 사이의 공동응원단이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은 2007년 12월 28일과 2008년 2월 4일 개성에서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열차 이용관련 실무접촉 끝에 나온 결과였다. 이때 남북 당국은 “베이징올림픽에 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600명의 공동응원단을 구성해 파견기로 합의”했다.<sup>66</sup>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각각 150명씩 총 300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올림픽 기간 전·후반기로 나눠 2차례 파견할 예정이다. 1, 2차 응원단은 대회 중간에 교대할 예정이어서 남북은 대회기간 300명 규모의 응원단을 유지하게 된다. 남북은 또 응원단을 개·폐막식에 각각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북의 올림픽 참가 종목이 확정된 다음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원곡·복장·응원도구·

<sup>63</sup> 『서울신문』, 2006.11.23.

<sup>64</sup> 『문화일보』, 2005.11.21.

<sup>65</sup> 김영란·김홍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2013), pp. 285~300; 김홍태·김동선,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평가 및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pp. 3~19.

<sup>66</sup> 『세계일보』, 2006.2.5.

응원 형식과 방법·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 문제 등은 물론 응원단이 이용할 열차 편성 등 경의선 이용과 관련한 문제도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sup>67</sup>

그러나 실제로 성사된 것은 남북 응원단의 참석이었고 그것도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뒤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북의 응원단은 8월 12일 8강에 진출하기 위하여 북쪽 여자축구 선수단이 경기를 치르는 자리에 모였다. 이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코리아 응원단’은 버스로 3시간을 달려 오후 5시50분(한국시각)께 텐진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북쪽 응원단 500여명은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었다.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응원복을 입은 남쪽 응원단 400여명은 도착하자마자 북쪽 응원단 맞은편에 앉아 한반도기를 흔들었다.”<sup>68</sup>

그 다음으로 심지어 우리 땅에서 열렸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9.19.~10.4.)에서는 북한 선수단만 참가하고 지나갔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7.3.~7.14.)와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10.2.~10.11.)에는 북한이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다. 남북 사이의 첨예한 긴장과 극단적 갈등이 풀리기 시작했던 계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1월 1일 신년사를 통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0일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는 남북의 올림픽참가를 의제로 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했고 남북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표, 남북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제겨울스포츠연맹 회장(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Olympic Winter Sports Federations)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협력위원회의 장(Chair of the Coordination Commission PyeongChang 2018)이 참석했다. 여기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일정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북한 선수의 참가와 관련된 예외 상황을 다루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가, 세리모니, 유니폼 등) 공식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참가의 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중요 결정”을 내렸다.<sup>69</sup> 그 결과는 남북의 공동입장이었

<sup>67</sup> 『경향신문』, 2008.2.5.

<sup>68</sup> 『한겨레신문』, 2008.8.14.

<sup>69</sup> IOC <<https://www.olympic.org/news/factsheet-on-the-north-and-south-korean>>

고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였으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행사에서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독도까지 포함된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개막식 직전인 2월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스웨덴 여자 대표팀 사이 평가전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독도와 울릉도가 함께 그려진 한반도기를 이용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복에는 독도가 빠져 있었지만 훈련복에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그려져 있었다.<sup>70</sup> 이에 대하여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깃발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취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sup>71</sup>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많은 진통을 겪었다면 2018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녀 탁구 단일팀 구성은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 예정에도 없던 단일팀 구성은 5월 2일 국제탁구연맹 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남북 단일팀 이벤트경기를 벌이면서 남녀 단체전 준결승전에 단일팀을 각각 출전시키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다.<sup>72</sup> 한국 대표팀 선수단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주정철 북한탁구협회 서기장,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회장이 단일팀 구성 문제를 꺼냈고 “탁구협회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로부터 단일팀 추진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고 대한체육회를 거쳐 3일 오전 5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sup>73</sup> 탁구 단일팀은 전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유니폼을 입었고 명칭은 KOREA로 했으며 준결승 결과 시상대에 남북한 국기를 각각 매달았다.

그 다음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는 사전에 남북단일팀을 희망하는 종목을 각 경기협회의 자원을 받아 결정했고 그 뒤에 남북의 공동 훈련도 진행했다. 선수들의 불만이나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결국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출전시켰다. 그러나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하는 개막식에서 등장했던 한반도기는 제주도만 포

olympic-participation-meeting) (Accessed May 1, 2018).

<sup>70</sup> 『조선일보』, 2018.2.5.

<sup>71</sup> 『동아일보』, 2018.2.6.

<sup>72</sup> 『한겨레신문』, 2018.5.4.

<sup>73</sup> 『조선일보』, 2018.5.4.

합했다. 2018년 6월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말에 열렸던 4자회의(남북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남북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정치, 외교 이슈에 부담스러워해 과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전례를 따르기로 하면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졌던 것이다.<sup>74</sup> 2018년 아시안게임에는 한국에서 원정한 인원과 현지의 남북한 교민들로 구성된 200여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이 등장했다.<sup>75</sup>

## VII.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이 1947년 6월 스톡홀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승인받은 뒤부터 2018년 9월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북 사이의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사용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열린 남북 체육회담과 국제체육대회 가운데 단일팀 및 단일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면 다음과 같다.

남북 단일팀과 단일기 관련 가장 중요한 회의는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이었다. 여기에서 단일팀의 국가로 아리랑을 합의했고 국기로는 후속 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했던 오륜 문양과 ‘KOREA’가 새겨진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회의는 1989년 판문점에서 열렸던 1990년 중국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었다. 여기에서도 단일팀의 국가로 아리랑을 합의했고 국기로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한반도 지도를 새긴 것으로 합의했다. 1989년의 단일기는 한반도기로 불린다.

이 논문은 단일기에 한반도 지도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1963년 로잔 남북체육회담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북한이 제안했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제주도도 보이지 않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한반도 지도가 상징이 없다고 거부했다. 1989년 판문점 남북체육회담에 북측이 가져왔던 단일기 안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섬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북의 회담수석대표는

<sup>74</sup> “독도 빠진 한반도기 들고 남북 또 공동 입장,” 『중앙일보』, 2018.8.20, <<https://news.joins.com/article/22897309>> (검색일: 2018.8.20.).

<sup>75</sup> 『한겨레신문』, 2018.8.20.

수많은 섬을 다 그려 넣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만 상징으로 포함시키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1963년과 1989년에 남북 양측은 한반도의 3000여개의 섬 가운데 독도가 가지는 역사적이고 지정학적 상징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겠다.

1947년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뒤 1국가 1국가올림픽위원회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림픽참가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단일팀 구성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단일팀 구성에 매우 미온적이었고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반발을 사게 되어 1963년 바덴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도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뒤에도 남북 사이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 끊이지 않았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이 평행선을 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 남북이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응원을 벌인 이후 단일팀 및 단일기 등과 관련하여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 1990년부터 2018년 사이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13회의 공동입장, 16회의 한반도기 이용, 7회의 단일팀 구성, 9회의 공동응원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1947년 이후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역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브런디지 위원장, 사마란치 위원장, 로게 위원장, 바흐 위원장 등은 모두 남북 단일팀의 구성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체육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북 단일팀의 성사라는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막강한 권한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의 합의가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합의는 대체로 해당 국제체육대회 직전이나 도출되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이용은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았다. 분단과 한국전쟁은 물론 냉전의 구도 위에서 남북의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문제는 함께 일어붙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데탕트의 바람이 불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체육교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남북 단일팀 구성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7·7 선언까지 잉태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이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구성의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변수가 불거지면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나 공동입장이 성사되었다.

국제정치의 논리만큼 국내정치도 남북 단일팀 구성과 단일기 이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부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졌던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입장을 실현한 것이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인 2006년에 외교부도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2006년과 2007년 아시안게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등장했던 것이다.<sup>76</sup> 그 뒤 10년 동안 보수정부가 남북 체육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의 선수단만 참가한 채 끝났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북한이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다.

남북의 체육교류와 협력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극단적 갈등을 풀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라 하겠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이 더욱 빈번하고 규모도 더 확대되고 그 결과 남북의 동질성이 더욱 넓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단일팀의 상징인 한반도기에 있어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앞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단일팀이 참가한 국제체육대회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2006년과 2007년 아시안게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펼쳐였으나 그 뒤 10여년 동안 정부가 이 방면에 두 손을 놓은 결과 이제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더 이상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펼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약 10년 사이에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는 관례가 더 굳어진데 더하여 심지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용되었던 한반도기에서도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뒤 열렸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독도가 한반도기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더욱 굳히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아시안게

<sup>76</sup> 『서울신문』, 2006.11.23.

임에서도 다시 2006년과 2007년 시절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다.<sup>77</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동계나 하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그 도시의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가 개최지의 이점을 통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장기간 조율을 해서 다시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에서부터라도 2006년 및 2007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포함시키는 시도를 이제 한국에서 유치할 아시안게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마침 강원도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계양할 준비도 필요하다.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를 막겠지만 남북은 지혜를 모아 일본의 수도에 열릴 올림픽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새겨진 한반도기를 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이 더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국회연석회의를 통하여 남북단일팀의 상징을 한반도기로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남북의 체육회담을 통하여 한반도기를 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 사용에 관한 결정에 따르는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국회에서 한반도기를 법으로 정하고 그 법에 따라 정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법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입법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 제출: 9월 3일 ■ 심사: 10월 24일 ■ 채택: 11월 20일

<sup>77</sup> 『중앙일보』, 2018.8.20.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운용. 『위대한 올림픽』. 서울: 동아출판사, 1990.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50年史, 1946-1996』. 서울: 대한올림픽위원회, 1996.  
 윤득현. 『올림픽의 정치』.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9.  
 허복·오동섭. 『올림픽정치사』.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2. 논문

- 강복창. “남북통일축구, 교류의 디딤돌 포석.” 『SPORTS KOREA』. 제267권, 1990.  
 김동선.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김영란·김홍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2013.  
 김재우.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4호, 2013.  
 \_\_\_\_\_.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6호, 2013.  
 \_\_\_\_\_.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한국체육학회지』. 제53권 제6호, 2014.  
 \_\_\_\_\_.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1호, 2015.  
 김홍태·김동선.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평가 및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박도천. “통일 앞당기는 남북체육교류 3탁구단일팀 동행기: 승리, 이별, 그 짧았던 46일간의 통일여정.” 『SPORTS KOREA』. 제272권, 1991.  
 박주한. “냉전체제의 종식과 남북한 스포츠 교류.” 『움직임의 철학: 한국스포츠 무용철학회지』. 제5권 제2호, 1997.  
 이현우·김재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코리아 단일팀참가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6.  
 하응용. “남북한 스포츠회담사.” 『체육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0.  
 황옥철. “남북체육회담의 변천사 고찰.” 『체육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7.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Annuaire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Lausann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1908.

###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 1989.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관련 제2차 남북체육회담 회의록』. 1989.

LA84 Foundation Digital Library Collections <<http://digital.la84.org/digital/>>

## Abstract

### United Korean Team and Flag: *History and Characteristics*

*Junhan Lee*

This essay raises the following interesting questions: Why, when and how have the two Koreas pursued to form the united Korean team? Why, when and how did the two Koreas agree on the united Korean flag? And why, when and how did the two Koreas exclude Dokdo from the Korean peninsula flag? In order to answer these important questions, this study traces all the importan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between 1947 and 2018. Ever since Korea was accepted as a National Olympic Committee member in 1947, the two Koreas have marched together at the (opening and/or closing) ceremonies 13 times, held together the Korean peninsula flag 16 times. formed united Korean team 7 times, and supported together the team 9 times. As a result, this essay finds remarkable historical fact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united Korean team and flag,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ncluding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Key Words:** Inter-Korean Sports Talks, United Korean Team, United Korean Flag, Korean Peninsula Flag, Presidential Election, Institution